



양양소식

군정방침

I. 신뢰받는 자치행정
 I. 균형있는 지역발전
 I. 매력있는 관광개발
 I. 실속있는 복지실현
 I. 특색있는 문화창달

발행인:양양군수 / 편집인:기획감사실장 / 발행처: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033)672-4242



3월 역사적 양양국제공항 개항 예정 중국 상해와 직항로 개설... 매주 3회 6편 운항

21세기 환동해권의 항공교통 요충지로 떠오르는 양양국제공항이 오는 3월말 개항을 앞두고 중국 상해를 연결하는 정기여객선이 취항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공항의 위용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우리군과 강원도는 지난 27일 중국 상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방항공사에서 양양~상해간 정기 항공노선을 매주 3편, 왕복 6편을 운항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혀, 개항지 지정 가능성을 높이는 등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활성화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당초 매주 2회 운항보다 1회가 늘어난 이번 동방항공사의 직항로 증편에 따라 우선 2백여명이 탑승 가능한 MD기종을 운항하고 탑승인원이 증가할 경우, 3백여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에어버스급 A300기종을 운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 중국과 정기 직항로 개설이 처음으로 확정됨에 따라 북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북방항공사, 심양의 국제항공사 등과도 협의중에 있으며, 내년 3월 개항전에 정기노선 개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본항공과 일본에어시스템, 전일본항공 등 일본항공사와도 정기항로 개설을 요청해 협의중에 있으며, 오사카, 후쿠오카, 요나고 등에서 재일민단과 현지 일본인들이 양양 국제공항 개항직후 전세기편으로 입국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함께 대한항공이 제주도 노선의 적극 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와 연결하는 국내선 직항로 개설이 오는 3월말 개항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중국 상해와의 직항로 개설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의 잠재적인 관광수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직항로 개설 움직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본격적인 대규모 공사에 들어가 현재 전체 공정을 99%를 보이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은 이번 중국 상해와의 직항로 개설을 비롯해 일본, 대만, 동남아 등 환동해권 벨트를 잇는 직항로 개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리군과 강원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정기노선 개발건의와 추진단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직항로 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국제공항 규모에 걸맞는 후속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양양국제공항이 환동해권 중심공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세, 검역, 출입국 등 CIQ 기관이 공항내에 상주해 제반사항을 처리하는 개항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군과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지 지정을 위해 직항로 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중국, 일본, 홍콩 등 동북아시아 일대를 대상으로 직항로 개설 실무작업을 펼쳐왔다. 이번 우리군과 중국 상해와의 직항로 개설은 국제공항 개항지 지정 가능성을 높이며 양양을 비롯한 설악권 4개 시·군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강원도가 환동해권 중심지로 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강릉~서울까지 운항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가 오는 3월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강릉노선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강릉권과 설악권 이용객 증가 등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는 3월말이면 21세기 환동해권 중심지로 도약하며 강원도의 하늘을 열어젖힐 양양국제공항 개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설악권의 유일한 부양책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관광을 테마로 하는 중앙과 강원도,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구름위로 치솟은 해맞이 대성황

관광객 8만 4천명 몰려... 떡국 나누기 등 행사 다양



임오년 새해를 시작하는 2002년 우리군 해맞이축제가 31일부터 1월1일까지 8만4천여명의 관광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낙산해수욕장과 낙산사 등 양양관내 일원에서 다양한 해맞이 행사로 펼쳐져 추억과 낭만을 선사했다. '해맞이의 고장'인 우리

리군에서 개최된 임오년 해맞이축제는 백사장에서 감자를 구워먹는 모닥불 밝히기를 시작으로 송구영신 한마당, 새해 연하장 보내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동해신요제례 봉행, 민속놀이,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는 가족들과 함께 해맞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새해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이벤트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우리군 새마을 부녀회는 1월1일 새벽 5시부터 새해 첫 해오름의 장관을 보기 위해 찾은 해맞이 관광객들에게 1만그릇의 떡국을 나눠주며 따뜻한 '고향인심'을 선사해 발길을 끌었다. 올해 처음 마련된 '해맞이 떡국'은 부녀회원들이 밤새 사골을 고아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4곳에서 직접 나눠주며 겨울 추위를 녹이는 등 관광객들을 포근한 마음의 고향으로 안내했다. 해맞이 관광객 방경훈씨(33세, 안양시)는 "해맞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처럼 일출이 장관인 양양을 찾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새해 떡국을 먹어 올 한해 출발이 아주 상쾌할 것 같다"며 "몸도 마음도 열었는데 새해부터 관광지의 넉넉한 인심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북면 하조대 해수욕장 주민들은 시루떡과 따뜻한 커피를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해맞이 축제의 의미를 높였으며, 당초 폭설로 불투명했던 대청봉 해맞이 장소에는 7백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임오년 새해를 오색을 거쳐 대청봉에서 맞았다. 우리군에서 떠오른 해맞이축제는 폭설과 추위 등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적극적 관심과 주민들의 협조로 알차게 펼쳐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양 문화재 한눈에 본다

우리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1억2천만원 투입

우리지역에 산재한 각종 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제작된다. 우리군에 따르면 관내에 분포된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비지정 부동산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사업

토지소유현황 조회가능 지적 정보센터 이용신청

우리군은 주민편의를 위해 전국 단위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접수·처리 및 조회할 수 있는 지적정보센터의 확대,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초부터 본격적

의 정 소 식



1월 29일 새해 업무보고 청취

제 90 회 임시회 양양군의회(의장 황봉율)는 오는 29일 제9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02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양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오인택 군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오는 2월초 제91회 임시회를 열어 군청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해 제3대 양양군의회 마무리를 위한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민선 2기의 마지막 정책결과와 집행과정을 면밀히 감시·검토해 군민의 여론이 누수없이 반영되도록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상반기 실시되는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 직장협 공식발족

지난해 12월 22일 창립총회...

1백 60여명 가입

우리군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관현)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 양양문화원 대강당에서 회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했다. 21세기 행정환경 변화

비 1억2천만원을 투입, 오는 연말까지 분포지도도 제작한다.군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통해 고도 보존 정비계획은 물론 국토이용계획, 도시수립계획을 위한 종합적인 학술자료 확보와 문화재 지리정보 체계 구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각종 공단과 택지개발 및 SOC 확충사업 등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자료로 이용할 예정이다.우리군은 이를 위해 1백80일간 문화재 및 유적의 정확한 위치와 분포범위를 확인하는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분포지도 제작에 들어간다.특히 조사된 문화재의 전산화 작업도 실시할 계획에 있어 올해 양양군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향토문화재 보전 측면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우리군 관계자는 “양양지역의 경우, 국제공항 개항과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는 만큼 전통문화 유적을 보호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돼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문화재 및 유적의 정확한 위치와 소재지가 파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 운영에 들어간 지적정보센터는 사망자와 토지소유자 본인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를 제공하고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상속인) 등이다.지적정보센터 이용신청은 이곳을 통해 전국단위의 자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을 직접 방문해 신청인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된다.지적정보센터의 토지소유현황 이용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출가 여성의 호적등본), 위임장 및 인감증명 1부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재무과(670-2262)로 문의하면 된다.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 복리증진을 목표로 창립한 우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양공협)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양양군 환경복지과 이관현씨(가정복지)를 초대 회장으로, 부회장은 윤재복씨(재무과), 사무국장에 이상호씨(주민자치지원센터)를 각각 선출했다.양공협은 창립총회 선언문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등 권익보호를 위한 토대 마련에 우리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며 “회원들 모두가 군정발전에 헌신하고 새로운 행정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밑거름 역할을 해나가자”고 밝혔다.양공협은 공식적인 발족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설립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그동안 활발한 창립활동을 펼쳐 현재 1백60명이 양공협 회원으로 등록을 마치고 새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양공협 이관현회장(44세)은 “초대회장에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단합 등 협의회 기반 다지기에 노력하겠다”며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들을 전개하고 창의적인 군정발전이 이뤄지도록 자율적인 분위기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유적 탐방에 참가하세요

양양문화유적 탐방 실시... 3월까지 신청 접수

우리군은 ‘문화의 세기’를 맞아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관내거주 학생과 사회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양지역 문화유적 탐방을 본격 추진한다.올해 들어 역점적으로 실시되는 문화유적 탐방은 우리지역에 분포된 다양한 문화유산을 접하고,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로 실시돼 향토문화의 의미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우리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및 개인,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예상되는 양양 문화유적 탐방은 양양문화관을 시작으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양양선사문화전시실, 양양향교를 둘러본 뒤 오산리선사유적지를 견학한다.또한 제례행사가 열리는 동해신묘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지역의 대표적 사찰인 낙산사를 돌아 진전사지, 범부리고인돌, 선림원지, 하조대 등 문화·역사적 발자취가 뚜렷한 명소를 찾아가는다.특히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간 오산리 선사유적지와 불교발상지의 중창, 발굴작업이 시작된 진전사지 탐방은 참가자들에게 우리지역의 생생한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자긍심을 높게 된다.우리군은 올해 문화유적 탐방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들의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군은 이와 함께 문화유적 탐방 참가자들이 원할 경우, 역사적인 개항을 앞두고 있는 양양국제공항과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현장 견학도 병행할 계획으로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난해 우리군이 실시한 문화유적 탐방에는 관내 10개 기관·단체 등 모두 7백17명이 26회에 걸쳐 우리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적 체험행사 등 탐방에 나서 지역문화와 향토문화 알리기에 적극 참가했다.

천연염색체험 테마관광 인기

우리군 천연 염색연구회... 지난 12~13일 연계관광 자리매김

우리군이 지역경기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개발해 선보인 ‘천연염색체험’이 관광객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는 등 특색있는 테마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우리군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거주 시

2002년도 예산 1천2백91억원

지난해보다 2백6억원 증가...
5억 예비비 전환

우리군의 2002년도 예산이 2001년 당초예산보다 2백6억원(16%)이 증가한 1천2백91억3천5백만원으로 확정됐다.양양군의회(의장 황봉율)는 지난해 12월21일

민 17명을 대상으로 서면 공수전리 용소골에서 양양 천연염색체험을 실시하고 연
계관광에 따른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했다.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
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나무와 소나무를 이용해 명주 스카프를 염색하는 중심테
마를 비롯해 손두부 직접 만들기, 양미리·감자 구워먹기 등 겨울농촌 풍습체험이
펼쳐졌다.또한 농가민박 및 깍지탕, 토종닭을 재료로 양양의 향토음식 체험행사
가 고향의 분위기를 선보였으며, 비료포대로 눈썰매타기,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방물장수, 사랑방 이야기 등 농촌생활체험이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우리군 천연염색체험행사는 그동안 우리군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연
구모임으로 육성한 천연염색연구회(회장 설석자)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홈스테
이와 연계한 본격적인 관광상품화 가능성을 제시했다.우리군은 이에 따라 도·농
교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도시민들에게 청정자연과 농
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 당초 예산을 1천2백91억3천
5백만원으로 의결하고 제89회 정례회를 폐회했다.우
리군의 2002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1천67억1천
1백만원, 특별회계 2백24억2천4백만원으로 짜여졌
다.양양군의회는 이번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반
회계의 경우, 현남면 인구리~광진간 도로 및 교량
개설비 4억원과 캠핑 카라바닝 조성용역비 1억원 등
5억원을 일부 삭감, 예비비로 전환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됐다.우리군의 확정된 당초예산 1천2백
91억3천5백만원은 세외수입인 인구택지와 동호골프
장 매각대금 59억원과 지방교부세 78억원, 국도비 보
조금 49억8천만원 등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일 했어요!!!



해맞이 타종식

새해를 맞아 해맞이 관광객들이
낙산사 범종을 타종하며 소망을 빌었다.



떡국 나눠먹기

해맞이 축제에 처음 선보인
떡국 나눠먹기 행사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촛불 밝히기

해맞이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낙산 해수욕장에서 촛불을 밝히며 소망을 기원하는 모습.



영혈사 제례식

새해를 맞아 오인택 군수가 영혈사를 찾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2002 선진영농 첫걸음

오는 26일까지... 18과정 2천2백명 대상

우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범)는 오는 26일까지 양양관내 농업인 2천2백명을 대상으로 2002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한다.지난
9일부터 시작된 우리군 새해영농교육은 모두 18과정 40회에 걸쳐 선진영농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진행돼 지역 농업인들의 새해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해를 맞아 첫 테마로 시작된 친환경농업 영농교육은 지난 9일 양양관내 이장 1백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영농발전에 따른 비전제시로 뜨거운 교육열기를 뽐내었다. 이날 영농설계교육은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현황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력증진 △친환경농자재 및 농법활용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비료·농약관리 △친환경경관산물 품질관리 등에 대해 실시됐다. 농업기술센터는 또한 지난 10일에는 생활개선 분야, 11일은 양양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분야에 대한 영농설계교육을 진행했다. 농업기술센터 이상범소장은 “기술농업의 실현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신념과 확신을 갖고 교육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해가 되도록 알차고 내실있는 영농설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장 선거 결과

강현농협-전용우 이사, 서광농협-김호열 현 조합장 조합원 복지 증진과 수익사업에 최선

설악권의 새해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우리지역 농협장 선거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가운데 전용우씨와 김호열 현 조합장이 강현농협장과 서광농협장에 각각 당선됐다. ◆강현농협 조합장 선거결과 지난 8일 치러진 강현농협 조합장 선거는 9백80명의 조합원중 9백16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참신성과 변화를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진 전용우이사(54세, 사진)가 4백78표를 얻어 제10대 강현농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전 당선자는 93.4%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강현농협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 4백32표를 얻은 최익수 현 조합장을 46표차로 누르고 신임 조합장에 뽑혔다. 지난 5년간 강현농협 이사를 맡아온 전용우 당선자는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밀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며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복지는 물론 투명하고 알찬 농협경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전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농협문턱 낮추기, 금융서비스 개선, 금리의 현실화, 지역생산 농산물 명품화, 낙산지소 활성화 등을 공약사업으로 밝혔다. 제10대 강현농협장 이·취임식은 오는 2월15일 개최될 예정이다. ◆서광농협 조합장 선거결과 지난 9일 실시된 제11대 양양 서광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김호열 현 조합장(58세, 사진)이 재선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서 조합원 1천23명중 9백77명이 투표에 참가해 5백44표를 얻은 김호열 현 조합장이 4백28표를 획득하는데 그친 이정하씨를 제치고 지난 90년 이후 4대에 걸쳐 조합장에 당선됐다. 전국최고 복지농협 만들기애 앞장서고 있는 김호열 현 조합장은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여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해오던 수익사업과 조합원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호열 현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서 매년 4년 이상 흑자결산의 튼튼하고 안전한 농협, 환원사업 극대화 통한 복지농협, 경영의 투명성을 책임지는 농협 만들기 등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표명했다.

연어의 나라 일본을 다녀와서

눈을 창밖으로 내니 쌀물로 바닥을 드러낸 인천 공항에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었다. 드러낸 살 위로는 수 없는 생명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듯 했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 일행들은 설레임을 재우고 비행기에 올랐다. 구름위로 날듯하던 비행기는 어느새 흐려있는 니가따공항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우동 전문점을 찾아 갔다. 반듯한 인사는 기본이었다. 비가 내려서 손님들을 위한 우산 받침 하나도 꼼꼼하게 챙겨져 있었다. 타국에서의 처음 식사 치고는 먹을 만했지만 역시 뒷 맛은 개운치 않았다. 친절함 시청 직원의 안내로 우리는 시나노가와 강을 끼고 앉은 월드컵 경기장을 견학하였다. 백조의 도래지가 있는 곳으로 백조 날개를 연상시키는 경기장 지붕은 정말 자연과 잘 어울리게 만들어져 있었

순찰활동이 대형산불 막았다

강현파출소 직원들... 강풍속 30분간 사투



속초경찰서 강현파출소(소장 김성기) 직원들이 강풍으로 단선된 고압선에서 발화한 산불을 초기에 발견, 신속한 초동진화에 나서 대형산불 발생을 예방하는 수훈을 세워 화제가 되고 있다. 강현파출소 김성기 소장과 직원 2명은 지난 7일 오후 7시30분 강풍으로 인한 피해상황 및 피해 예상지역을 순찰 하던중 관할지역인 강현면 정암2리 군인관사 뒤편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현장확인에 들어갔다. 이들은 강풍으로 인해 단선된 고압선에서 발화한 불꽃이 주변 숲속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전으로 속초소방서와 한전에 연락을 취하는 한편 나뭇가지와 순찰차량에 탑재중이던 모래를 이용해 신속히 초동진화에 나섰다. 강풍과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현파출소 직원들의 위험을 무릅쓴 30분간의 사투와 신속한 조치로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위기의 순간이 사라진 것이다. 속초경찰서 김영석서장은 “화재신고를 대형산불을 예방한 강현파출소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주민안전 등 선행과 봉사에 앞장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랑이 담긴 온정의 손길

속소마련 및 성금, 쌀 등 이어져

지난해 연말을 맞아 우리군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한국농업인연합회 양양군 현북면회(회장 김광식) 회원 36명은 그동안 모금한 성금 1백50만원을 지난해 12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이웃간의 정을 나눴다. 현북면 회원들은 여성전 1리 김주선씨(70만원), 여성전 2리 이원삼씨(20만원), 잔교리 강길웅씨(20만원), 여성전 1리 이상영씨(20만원), 법수치리 고광수씨(20만원) 등에게

다. 주변의 편의 시설 또한 세심하게 배려되어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을보사'라는 절이었다. 동네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늘 신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었다. 어둠에서 비쳐지는 높은 목탑은 우리나라의 어딘가와 비슷했다. 절안에서는 부처를 볼 수 없었다. 신은 마음에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처럼 웅장한 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숙소로 이동중 우리 일행은 작은 호수에서 잠깐 멈추었다. 어둠에서 보이는 호수에는 하얀 백조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자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이 호수가 바로 백조의 도래지였다. 숙소에 도착하자 우리일행은 연어정식으로 식사를 했다. 익숙치 않은 맛이라 속을 많이들 거북해 했다. 무라가미시 기획과장이 나와서 환영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현남면 하월천리 이진주** < 다음호에 계속>

성금을 전달했다.또한 양양읍 구교 1리1반 정홍영 반장을 포함해 반원 18명은 지난해 12월31일 같은 반에 거주하는 장애인 김춘기 씨(68세) 세대에 쌀(10kg) 3포대를 지원하고 위로했다.특히 안동청과 노현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년소녀가장 김수진 자매에게 거처할 방을 마련해줬으며, 해태아이스크림 양양대리점은 이들에게 쌀 1가마니를 전달하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격려했다. 한편 양양홀로섬이 한마음후원회(회장 박상형)는 지난 22일 회원 및 지역인사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 일출예식장에서 2001 홀로섬이 송년잔치를 개최하고 초·중·고생 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양 홀로섬이 한마음후원회는 매년 양양지역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들을 발굴해 보살피는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